「과학과 기술」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duckhwan@sogang.ac.kr

「과학과 기술」이 새해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의 잡지'로 새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1968년에 창간된 이후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월간지로 과학기술 진흥과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과학대중화 노력에 앞장서기 위해 컬러 인쇄로 품위를 높이고 유료 구독과 서점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과학대중화를 지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학, 문학, 예술까지 지평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지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새로 디자인하고, 편집위원회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은 단순히 기획 업무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 과학기술계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내용의 글을 쓰는 일도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여론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로 및 중진 과학기술인의 무게 있는 의견과 함께 신진 과학기술인들의 패기 넘치는 참신한 주장도 충분히 담아내겠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과제를 발 빠르게 파악해서 깊이 있는 특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자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구 또는 개발 성과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단순히 과학기술 정책이나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계의 분명한 의견을 담은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과학기술인의 주장을 담아내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행사에 대한 소식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사회 참여 활동과 각종 전문 토론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소식도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 사라져 가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산업계와 과학교육계의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학과 기술」의 지평을 과감하게 넓히는 노력입니다. 좁은 전공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문학과 예술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철학적 이해나 윤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과학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시(詩)와 미술 작품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진정한 '과학기술인의잡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잡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과 기술」 편집위원회는 언제나 귀를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T